

삼성SDI, 전자화학소재 매출 급성장

비브라운관 매출 50% 이상 달성 ... 경상이익 20% 증가 사상최고

삼성SDI가 2004년 1/4분기 매출액 2조2157억원으로 2003년 4/4분기 대비 3.7% 증가하며 분기매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.

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3091억원과 230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0.1%와 6.0% 증가하며 역시 사상 최고로 나타났다.

그러나 영업이익은 신규사업에 대한 R&D 비용 증가로 전분기 대비 1.8% 감소한 3161억원에 머물렀다.

사업부문별로는 PDP 매출액이 2780억원, 2차전지가 1100억원, 모바일디스플레이(LCD 및 OLED) 7350억원, 그리고 컬러브라운관(CRT)이 1조600억원에 달했다.

2003년 4/4분기 비교해 PDP는 35%, 2차전지 7.8%, 모바일디스플레이는 6.5% 늘어났지만 브라운관은 3.3% 감소한 것이다.

PDP 판매량은 전분기에 비해 38.8% 증가한 16만8000대로 2분기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, 2차전지는 전분기의 2900만대 대비 6.9% 늘어난 3100만셀을 판매했다.

모바일 디스플레이 판매량은 4100만개로 전분기보다 2.5% 늘어난 가운데 특히 컬러제품 비중이 47%에서 53%로 높아졌으며 OLED 판매량도 53% 증가했다.

브라운관은 남미, 중국, 동남아, 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컬러TV와 데스크톱PC 수요가 늘어나 판매량은 전분기와 동일한 1700만대에 달했다.

특히, 디지털, 모바일제품 중심의 사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돼 비브라운관 사업의 매출 비중이 2002년 1/4분기 28%, 2003년 1/4분기 38%에 이어 2004년 1/4분기에는 52%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.

삼성SDI는 2/4분기에는 PDP 부문에서 HD급과 50인치 이상 판매비중을 각각 2003년 12%와 9%에서 2004년 34%와 20%까지 높이고 2차전지는 라인증설을 통해 월 최대 생산능력을 2003년 1600만셀에서 2004 4/4분기까지 2100만셀로 확대하고 메이저 고객에 대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.

휴대폰 LCD는 컬러비중을 60%까지 높이고 시장점유율은 2004년 상반기 24.7%까지 올릴 계획이며 중국 제2거점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.

OLED는 증착기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2배 높여 수동형 시장점유율을 2004년 상반기 44%까지 높이고 능동형 제품 사업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
삼성SDI CFO(최고재무책임자) 이정화 부사장은 “전통적 비수기인 1/4분기에도 성수기인 2003년 4/4분기를 넘어서는 실적을 거둔 것은 신규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기존 사업의 꾸준한 실적호조 때문”이라며 “2/4분기에도 사업부문별 고부가 제품의 판매 확대에 주력해 호조를 이어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4/04/22>